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일치는 내면에서 태어난다

오푸스데이의 단장님이 학생들과 하느님의 선물이자 그리스도인 생활의 본질적 차원인 일치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그는 일상적인 신앙 체험에서 출발하여 교회와 오푸스데이 안에서 일치가 어떻게 살아지고 보호되는지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다.

...

“일치되고, 일치와 친교의 표징이 되며, 화해된 세상을 위한 누룩이 되는 교회”. 교황 레오 14 세는 자신의 교황직 시작 미사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 면에서 교황직의 지평을 표시하고 있는 염원을 표현하셨다.

8 개월 후, 우리는 교황께서 성문을 닫으시고 희망의 희년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 시간 동안, 일치는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교회, 사회, 그리고 인간 자체의 구성적 특징이며, 따라서 희망의 문을 열린 채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글은 로마에 거주하는 여러 나라 신학 및 철학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 오푸스데이 총대리 페르난도 오카리스 주교의 강의를 요약한 것이다. 질문들로부터 받은 선물, 공유된 과업, 그리고 성 호세마리아가 말씀하셨듯이 지배적인 열정으로서의 일치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이 전개된다.

다음은 강의의 서론과 질의응답이다

오푸스데이의 일치는 근본적으로 교회의 일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 호세마리아는 오푸스데이가 교회의 작은 부분임을 자주 상기시키셨다. 이로부터 오푸스데이의 일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교회의 일치를 유지하는 요소들과 동일하다는 것이 도출된다.

일치는 보편성, 거룩함, 사도성과 함께 교회의 근본적인 특성 중 하나이다. 더욱이,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며 요청하실 때 복음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표현된 특성 중 하나이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요한 17,21). 이 기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교적 일치를 이해하기 위한 매우 깊은 열쇠를 제공한다.

실제로 교회의 일치와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의 일치의 궁극적 본질은 하느님의 일치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제한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한, 우리는 특히 성령 안에서 이것을 본다. 왜냐하면 결합시키는 것은 사랑이고, 성령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오픈스데이의 일치를 이루는 더 인간적인 요소들도 사랑에 의해 형성될 때 진정한 가치에 이른다. 그것들을 단지 조직적 요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러한 면도 있지만, 그것들의 가장 깊은 가치가 일치시키는 사랑의 표현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의 일부로서 오픈스데이의 일치는 세 가지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요셉 라칭거 교수가 교회에 대해 말할 때 사용했던 구분을 따르면: 교회가 가시적으로 무엇인지, 구성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활동적으로 무엇인지이다.

첫째, 교회는 가시적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는 한 백성, 인간들의 집단이며,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많은 민족들로 형성된 백성이다. 베드로의 첫째 서간은 교회를 하느님께서 당신 것으로 삼으신 백성이라고 말하며 매우 의미 있는 표현으로 이를 나타낸다(1 베드 2,9).

오순절부터 보편 교회는 하나의 전체이다: 처음에는 작지만 처음부터 보편성으로 불린 가시적 백성의 가시적 실재이다.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민족들로 인간적으로 형성된 이 백성에 가시적 일치를 주는 것은 주로 세 가지 요소이다: 공동의 신앙 고백, 성사 생활, 그리고 공통의 우두머리인 교황의 존재이다.

외적으로 고백되는 같은 신앙, 다양한 예식과 전례가 있는 같은 성사 생활, 그리고 보편적 통치의 같은 원리는 이처럼 다른 민족들과 문화들의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가시적 요소들이다.

라칭거가 교회에 대해 언급한 다른 측면은 교회가 구성적으로 무엇인가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비의 핵심에 들어간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 호세마리아는 교회가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며 이를 강력하게 상기시키셨다(“그리스도는 지나가신다”, 106 항).

이것이 교회의 가장 깊은 실재이며, 가시적인 모든 것에 의미와 효력을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부에서 힘을 주시며 현존하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의 몸이라는 것이다. 신비체는 은유가 아니다: 그것은 영적 실재이며, 모든 지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결합이다. 그것이 구성적으로 교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셉 라칭거는 매우 잘 알려진 간결한 정의를 제시했다: 교회는 성체성사로 사는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며 성체성사 거행에서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된다.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며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교회의 일치를 고려할 수 있는 세 번째 차원으로 넘어간다. 첫 번째가 교회가 가시적으로 사람들로 형성된 백성이라는 것을 언급했고, 두 번째가 가장 깊은 실재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는 교회가 세상에서의 행동에서 보편 구원의 성사라는 것을 표현한다. 즉, 교회의 성화시키는 힘은 복음 선포와 성사들에서, 특히 사람들을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로 이끌고 결과적으로 그들 안에 사도적 열정을 일깨움으로써 전개된다.

교회의 일치와 오푸스데이의 일치는 결국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인간적이고 조직적인 표현도 가지고 있지만 깊이 초자연적이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므로, 그것을 돌보는 것도 모두의 책임이다.

...

일치가 온 교회에 속하는 선물이라면, 오푸스데이의 정신에는 무엇이 있어서 일치를 지배적인 열정 중 하나로 살고 돌보게 합니까?

오푸스데이에서 살아지는 일치는 본질적으로 다른 교회적 실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치와 동일하다. 그러나 당연히 오푸스데이에는 그 존재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의 고유한 측면들이 있다.

근본적인 점은 정신의 일치이다. 오푸스데이는 결정된 영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그 정신에 참여하는 만큼 깊은 일치가 이루어진다. 획일성이 아니라 의견의 문제에서는 큰 자유를 가지고 그 정신에 따라 생각하고 사는 공통된 방식이다. 성호세마리아는 작은 공통분모—오푸스데이의 정신—와 매우 넓은 분자에 대해 말씀하셨다. 일치는 그 공통분모가 준다. 그 정신은 “복음처럼 오래되었고 복음처럼 새롭다.” (“서간집”(II), 서간 6, 31 항).

따라서 오푸스데이에 교회에 공통된 것과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교의 본질 자체에 속하는 실재들을 사는 고유한 방식들이다.

이러한 측면들은 무엇인가? 오푸스데이 정신의 몇 가지 핵심 요점을 살펴보면, 영적 생활의 중심이자 뿌리인 성체성사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은 온 교회의 중심이지만, 오푸스데이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한 매우 명확한 의식과 일상적 충실성에 대한 생활적 요구로 살아진다: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성사의 영혼이 되며, 성 호세마리아가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생각들”(“대장간”, 268 항과 835 항)까지도 성체성사에 매우 집중되도록 노력한다.

성체성사가 중심이자 뿌리라면, 오푸스데이 정신의 토대는 하느님 자녀의식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것이지만, 오푸스데이에서는 영적 생활의 토대로서 특별히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의식으로부터 신심 실천, 일, 그리고 일상생활을 사는 것이다.

이것과 함께 오푸스데이 정신의 중심축이 있다: 일의 성화이다. 우리 모두는 성화되도록 불리었고,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일을 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리도록 불리었다. 그러나 오푸스데이에서 이 측면은 매우 고유하고 중심적인 것이다: 그것은 성화와 사도직의 노력이 중심을 두는 지점이다.

이처럼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모든 공통 요소들과 함께, 오푸스데이에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고유한 특징들이 있다. 그것은 같은 정신을 사는 만큼이다: 중심이자 뿌리로서의 성체성사, 토대로서의 하느님 자녀의식, 그리고 중심축으로서의 일의 성화이다.

...

신부님, 일치가 온 교회와 오푸스데이를 위해 청하는 하느님의 선물이라면, 각자를 위한 개인적 선물로도 청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다. 일치는 각 사람을 위한 하느님의 선물이다. 바로 우리 안에서 일치에 대한 열망을 증대시키고, 그분의 은총으로 사랑과 애정으로 일치의 요소가 되는 힘을 받음으로써 말이다.

따라서 일치는 모든 차원에서 효과성의 조건이다. 성 호세마리아는 1931년 서간 중 하나에서 특별한 명확성으로 이를 표현하셨다: “하느님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과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고려하신다. 그러나 사랑이 우리를 일치시킨다면 모두의 강함도 고려하신다.” (“서간집”(I), 서간 2, 56 항). 일치는 사랑이 우리를 일치시킨다면 강함을 준다. 그리고 진정으로 일치시키는 것은 애정이다.

여기서 애정을 순수한 감정과 구별하는 것이 적절하다. 진정한 애정, 진정한 사랑은 무엇보다도 행위로 나타난다: 헌신, 봉헌,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에서. 많은 경우 그 사랑은 감각적 애정을 동반한다;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일치가 있다.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은 일치와 많은 관련이 있다. 그것은 또한 사도적 열정의 원천이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의 사도적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살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신의 활동이 더 제한적이거나 활동 범위가 적을 때조차도 격려하고 추진력을 준다. 다른 이들이 하는 것도 우리의 것이며, 이러한 의식은 힘과 풍요로움을 낳는다.

...

오푸스데이가 창립 백주년에 가까워지고 그 메시지가 세계 여러 곳의 다양한 세대, 문화, 장소의 사람들에게 도달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적 변화와 상황 속에서 그 책임을 맡으며 오늘날 어떻게 일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일치에 대해 자주 묵상하고 주님께 진정으로 청할 수 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빛을 주시도록 말이다.

그다음, 많은 요소들이 도움이 되지만, 매우 중요한 하나는 오푸스데이의 일치가 가족 고유의 일치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가족의 일치를 생각하지 않고는 오푸스데이의 일치에 대해 말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그 정신의 매우 고유하고 본질적인 것이다.

항상 우리의 성인 창립자와의 직접적인 결합으로 나타나는 일치이다. 성 호세마리아는 하늘에서 계속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의 저술들, 그분의 정신,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기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생애에 대해 아는 것을 통해서 말이다. 일치를 돌보는 개인적 책임의 일부는 또한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살아있도록 돋는 데 있다: 여러 필요에서 그분의 전구에 의지하고, 그분의 기억을 현존시키며, 그분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교황 성 바오로 6 세께서 복자 알바로 델 포르티요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이다: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창립자께서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하십시오”. 돈 알바로는 그것에 대해 매우 감사했고, 큰 기쁨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성 호세마리아와의 결합은 오푸스데이 일치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모든 것과 함께, 각 순간에 누구든지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마음도 있다: 오푸스데이 전체, 두 부문에 실제적 일치를 주는 자녀의 마음이며, 가장 근본적인 것인 정신의 일치에 항상 기초한다.

...

신부님, 때때로 오해나 과거의 상처가 일치를 사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이나 원망이 있었을 때 어떻게 신뢰를 재건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들에서 첫 번째는 사람들이 주님의 태도를 생각하도록 돋는 것이다: 하느님은 각 사람을 무한히 사랑하시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신다. 이 매우 깊은 진리로 돌아가는 것은 다른 이들 앞에서 자신을 위치시키는 방식을 바꾸며, 특히 과거나 현재의 원망이나 불쾌함의 이유가 남아있을 때 그 사람을 하느님께서 무한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돋는다.

성 바오로는 우리가 잘 아는 에페소서의 본문에서 힘차게 이를 표현한다: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에페 4,1-4). 여기에 이미 매우 구체적인 측면들이 나타난다: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진 일치이다.

평화를 주는 것. 성 호세마리아는 여러 번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의 씨 뿌리는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셨다. 이미 짊은 시절부터 내밀한 메모에서 놀라움으로 쓰셨다: 주님께서 제 영혼에 또 다른 특징을 두신 것 같습니다: 평화,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주는 것. 그리고 이 평화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에페 2,14).

그러므로 일치를 돌보는 모든 노력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노력이다. 성 바오로가 말씀하시듯이: “평화의 끈으로, 한 몸과 한 성령이 되어.” (에페 4,3-4). 사랑의 선물과 함께 결합시키는 것은 성령이시다. 의심할 여지없이 신앙이 일치시키지만, 더 근본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은 사랑이며, 성령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이시다.

...

우리는 사회, 정치, 기관들, 심지어 가족에서까지 불일치와 개인주의로 특징지어지는 맥락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조점이 부족할 때,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서 태어나는 진정한 방식으로 일치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성 호세마리아는 일치의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일치를 창조하고, 옹호하며, 돌보는 사람들. 이것을 살기 위해 주된 참조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일치를 돌보는 열정, 열망, 경향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로 지배적일 수 있는가? 생각과 감정을 스며들게 하고, 따라서 삶의 방식을 자발적으로 움직일 때이다. 그때 다른 이들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들의 내적 생활, 그들의 일, 그들의 건강, 그들의 질병, 항상 각 경우에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길을 용이하게 하며, 그들의 성공을 기뻐하는 데 관심이 있다. 다른 이들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그것이 일치이다.

일치는 또한 고통받는 이와 함께 고통받도록 이끌며, 다른 이들의 결점이나 한계에 대한 태도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일치에 대한 열망이 지배할 때, 일치시키는 것을 증진하고 경우에 따라 비록 가볍더라도 불일치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을 피하고 심지어 거부하려는 특별한 주의가 자연스럽게 생긴다.

...

신부님, 때때로 함께 일하고 결정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느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후스데이에서 합의제는 일하는 습관적 방식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장애물이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이해하고 살 수 있습니까?

오후스데이의 조직 안에서 합의제는 일치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통치와 사도직 활동 모두에서 모든 차원에서 살아져야 한다. 그것은 다른 이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누군가가 혼자 명령하는 것을 피하기 때문에 신중함의 큰 척도이다. 성 호세마리아는 처음부터—하느님의 빛으로—그것을 확립하셨고 온 오후스데이에서 그렇게 원하셨다.

그분은 서간 중 하나에서 매우 강력하게 이를 상기시키셨다. “나는 수많은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반복해 왔고, 내 생애 동안 훨씬 더 많이 반복할 것입니다. 나는 오후스데이에서, 모든 차원에서, 전제정치에 빠지지 않도록 합의제 통치를 요구합니다.” (1951년 12월 24일 서간, 5항).

단순히 급함 때문에 일방적인 일하는 방식에 빠질 위험이 있다: 긴급하고 다른 이들을 기다리고 그들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성 호세마리아는 긴급한 일들은 기다릴 수 있고, 매우 긴급한 일들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시간을 잃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정된 대로 연구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진행 방식은 효과성과 평온함의 보증이다.

혼자 결정하는 것은 특히 일들이 복잡할 때 불안을 낳을 수도 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기여를 고려하는 것은 더 잘 보도록 돋는다. 이것은 누군가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알 때도 마찬가지이다. 경험이 보여주듯이 덜 아는 사람이 다른 이에게 빠져 있던 빛, 해결책이나 뉘앙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합의제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지불할 가치가 있는 대가이다. 왜냐하면 얻는 것이 매우 큰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을 하기 위한 체계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정신이다: 우리 모두가 다른 이들의 빛을 필요로 한다는 확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차원에서 살아져야 한다.

...

자주 생기는 불안이 있습니다: 때때로 동의하지 않거나 분열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데 확신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와 일치를 돌보는 것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에서 항상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 말입니다.

일치에 대한 이 지배적인 열정의 또 다른 측면은 필연적으로 다양성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이끈다.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일치는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거기서 결합의 지점들을 찾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는 이미 말한 것과 결합된다: 다른 이들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은 비판적 정신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살기 위해 첫 번째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결심하는 것이다: 일치의 중요한 부분이 다른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결합된다. 물론 신중함을 가지고. 어떤 것이든, 어떤 순간에든, 어떤 방식으로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적절한 공간들에서—예를 들어 회의나 대화에서—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좋다. 심지어 자신이 소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말이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치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치를 향한 다리를 건설한다.

몇 년 전 교리성성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을 때, 오랜 세월 자문위원이었던 철학자 코르넬리오 파브로를 자주 방문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는 강조하며 나에게 말했다: "내 경험으로 한 가지 조언만 드립니다: 회의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다른 모든 이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것을 보더라도 말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같은 조언을 남깁니다.

게다가 일치를 돌보는 것은 매우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교적 형제애를 돌보는 것을 거친다. 이것은 일치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 오후스데이 내에서 집단을 만드는 것을 피하고, 모두를 똑같이 대하여,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한 진실한 관심을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 호세마리아에게는 일치시키는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가 큰 기쁨이었다.

성격, 취미의 다양성이나 그 성격 차이로 생기는 인간적 연결의 어려움에 놀라서는 안 된다. 성 호세마리아는 서간 중 하나에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또한 모든 자연적 호감이나 반감을 넘어서는 형제애를 끊임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진정한 형제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며, 잘 결합된 가족을 이루는 이들 고유의 대우와 이해로”(“서간집”(I), 서간 2 항). 아름답고 동시에 요구가 많은 말씀이며, 그것을 살고 전달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마치며

마치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기억하고 싶다. 그것은 항상 묵상할 거리를 많이 준다. 1957년에 쓰인 성 호세마리아의 서간 중 하나이다: “중앙평의회 경당의 감실에 나는 이 말씀들을 새기게 했다: “일치 안에서 완성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는 하나이다. 하느님의 대장간에 들어가 항상 이 놀라운 머리, 의지, 마음의 일치를 보존하기를.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그분을 통해 사람들에게 모든 은총이 이르는 훌륭하고 풍요로운 통로—일치와 함께 명료함, 사랑, 그리고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것은 단순히 경건한 담화의 마무리가 아니다. 그것은 경건하고 깊이 논리적인 결론이다. 자연스럽게 우리를 일치를 위해 기도하도록 이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일치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감사하고 낙관적인 영혼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유지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돌볼 줄 알도록, 그리고 매우 큰 선물인 오푸스데이의 일치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아마도 우리는 일치에 너무 익숙해서 그것을 충분히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감사하며, 더 잘 돌보는 은총을 청하는 것이 가치 있다: 추상적인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일치가 진정한 열정이 되는 실제적인 행동, 결정, 태도에서.